

2 뉴스



한 총장이 Zoom을 통해 '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천민주 기자)

총장-학생 온라인 간담회, 직접 소통의 장 마련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지난 10월 20, 21학번 학생들과 한균태 총장 간 간담회가 열렸다.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는 10월 14시부터 Zoom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송출을 위한 스튜디오는 이과대학 B110호에 꾸려졌다. 초청 대상은 20, 21학번 학부생 100명이다. 서울캠퍼스 50명과 국제캠퍼스 50명이 구글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초 한균태 총장이 취임 후 학생 대표단이 아닌 일반 학생들과 소통하는 첫 자리다. 기획조정처 관계자는 “그간 미뤄온 학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인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신입생들을 격려하고자 20, 21학번을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경희의 자랑’, ‘진로’, ‘대학 생활’, ‘학사운영’, ‘개인’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여러 안전에 관해 기획조정처 측은 “유관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약 1시간 동안 총장과 학생 간 총 7개의 문답이 이뤄졌다. 다음은 이날 오고간 질문과 답변이다.

Q1. 총장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가 궁금하다.

A1. 내가 왜 태어났을까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걸어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닐까 싶다. 지난 66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이 뭔가 가끔 생각을 해 보는데 정해진 답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인생이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2. 총장이란 굉장히 힘든 위치인데 이러한 자리를 어떻게 맡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A2. 2019년은 언론정보대학원장, 정경대학 학장, 서울부총장 등 그간 맡아왔던 보직의 임기가 마감되는 시기여서 여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던 차였다. 그런데

2019년도에 총장 선출제도가 확정되면서 또 다시 고민하게 됐다. 경희대 출신이자 부총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총장으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출마했고 선출됐다. 총장에 선출되자마자 코로나 19 시기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교원과 직원, 학생 등 구성원 모두가 도와준 덕에 1년 반 안정적으로 학교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

Q3. 총장님의 대학 시절 꿈이 궁금하다.

A3. 솔직히 말하면 꿈이 별로 없었다. 나는 74학번인데 입시를 준비하며 경희대 포함 4군데 학교 중 고민하다가 경쟁력 차원에서 경희대를 선택했다. 미디어학과에서 공부를 하며 기자를 고민했는데 당시는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학과 전공과 적성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려왔고 그것이 꿈이었다.

Q4.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다보니 진로에 고민이 많다. 2학년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

A4. 고민이 많을 것이다. 대학에 32

년간 재직하면서 볼 때 저학년부터 진로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 보니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전공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보다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래학자 테모스 펠리는 코로나 19로 2030년이 되면 대학의 절반이 없어진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17년 당시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때 현존 직업의 65%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 했다. 단순한 단일전공으로는 미래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미래사회는 어떤 역량을 요구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문제해결, 협업, 창의성, 공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AI보다 확장된 지능(Extended intelligence)을 활용해야 한다. 미래의 트렌드를 보면 100세 시대가 도래할 때 2030년 이후 직장을 얻는 사람들은 평생 10번 이상 직업을 바꿀 것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micro degree(마이크로 디그리-학점당 학위제로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학사 학위와 별개로 미니 학위를 주는

제도) 등 인터넷을 통한 재교육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

진로 고민 못지않게 역량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네르바 스쿨은 거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세계 7개의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Apple, 아마존 등의 회사에서는 전공 불문하고 개인 역량을 중시한다. 책을 많이 읽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도 미래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Q5.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캠퍼스 모습이 궁금하다.

A5. 안타까운 질문이다. 경희대는 교육과 연구로 평판도 높지만,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으로 유명하다. 봄에는 본관 놀이라고 해서 4월에 목련과 벚꽃이 피면 학생들이 본관 앞에 자리를 깔고 짜장면도 시켜 먹으며 대학생활을 만끽하기도 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정부 방침대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 젊음의 캠퍼스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